

새마을운동으로 메아리치는

기생충박멸 자조방역사업 — 전국적으로 전개 —

국민보건을 위한 기생충박멸사업으로 펼쳐지는 「새마을자조방역사업」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활기있게

펼쳐지고 있다.

즉 기협이 학도점변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이미 75년도에 기협 일부처부에서 실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기협은 금년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우선 제1차 3개년 계획을 세워, 78년도에 총대상인원 6백만명으로 점변계획을 마련했다.

기협은 특히 새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自助防疫에 임한다는데도 그 뜻이 깊다.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자조방역 사업의 인원수를 보면 총 1백 70만 3천

서울시관 딸기의 기생충 부착상태

지역 별	구 분	제 취 일 자	수 량	감 사 엷 수	감 사 결									
					회 중 란		불 명 중 란		진					
					감출 엷 수	감출 비 율	감출 수	감출 엷 수	감출 비 율	감출 수	감출 엷 수	감출 수		
중로구 낙원시장		76.6.4	6	10										
중구 남대문시장		76.6.7	6	10										5
성동구 청량리시장		76.6.7	6	10										3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76.6.7	6	10										2
성북구 돈암동시장		76.6.7	6	10										4
서대문구 신촌시장		76.6.3	6	10				2	20	4				10
마포구 아현동시장		76.6.4	6	10										5
용산구 용산시장		76.6.4	6	10				1	10	1				2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76.6.3	6	10				1	10	1				9
관악구 노량진삼거리		76.6.4	6	10										3
도봉구 수유리시장		76.6.7	6	10				5	50	14				6
강남구 천호동시장		76.6.7	6	10				1	10	2				10
계			72	120				10	8.3	22				59

여명을 확보, 검번투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面 기사참조)

서울市販딸기의 기생충 부착 상태 조사보고

—기생충박멸협회서 조사—

여름철에 입맛을 돋구는 딸기의 성수기를 맞아 기협 서울시지부는 딸기의 기생충 부착상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어도서울시관 딸기에서는 기생충 부착이 검출되지 않아 국민식생활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는 그동안 딸기배과과정에서의 주의절 등을 환기시킨바 있는데 특히 인분제배를 강력히 억제 계몽시킨바 있다.

즉 기협 서울시지부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의 딸기성수기에 시내 전역 12개구를 대상으로 각 6kg의 딸기를 수거, 총 72kg을 120등분 검사한 결과 최종란은 전무상태이고, 불명충란이 8.3%로 22개, 진드기가 49.2%에 183, 진드기알이 14.2%에 29 등이었다.

그런데 채취방법으로는 종로구 낙원시장의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생산지인 대전, 일산, 논산 등 중부지방 전역이었다.

그러나 인분제배를 많이 하고 있는 영남지방 등에서는 아직도 기생충 검출량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조사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조사성적

과		진 드 기 알			생 산 지
검출비율	검출수	검출비율	검출수	검출수	
50	9				대전산
30	3	1	10	1	경기 일산
20	2	3	30	3	경기 광주산
40	9				충남 논산
100	36	3	30	7	경기 일산
50	8				충남보령웅천산
20	5				충남 논산
90	26	3	30	5	경기 안양산
30	4				충남보령웅천산
60	40				"
100	41	7	70	13	경기 광주산
					충남 대천
49.2	183	17	142	29	

76년도 춘계 전국

학생 검번 중간실적

—평균 83.3% 진전—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춘계학생검번사업(초·중·고생대상)에서 6월 10일 현재 총 대상인원 7,811,389명 가운데 83.3%인

6,506,016명을 검사 완료했다.

100% 검사목표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10일 현재 강원도가 94.5%로 전체 인원 481,407명 중 454,781명으로 으뜸

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남의 93.4%로 1,101,481명 중 1,028,747명이다. 실적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76년도 준계 학생검변 중간보고

76. 6.10 현재

지 부 별	대상인원	검사실적	비	율	비	고
서울	662,529	572,145	86.4			
부산	570,082	327,572	56.9			
경기	924,304	730,701	79.0			
강원	481,407	454,781	94.5			
충북	413,410	350,000	84.7			
충남	794,745	595,011	74.9			
전북	669,347	575,572	86.0			
전남	1,101,481	1,028,747	93.4			
경북	1,220,226	1,066,815	87.4			
경제	853,848	712,072	83.4			
제주	114,981	93,000	80.9			
계	7,811,389	6,506,016	83.3		1975년 6월 10일 현재 6,008,553명	

가정보건 공동시범
사업 전개

— 家協과 공동으로 —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가족계획협회와 공동 시범사업으로 「가정보건공동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일본기생충예방회

및 일본가족계획 국제협력재단,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범 사업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의 팔탄, 양람, 강안면 등을 시범부락으로 지정하여 이루어지는데 기생충관리, 가족계획, 및 국민영양등을 주안점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그런데 이사업의 대상인원은 약4만명 예산은 연간 4만불씩 3년간 도합 12만불로 책정하고 있다.